

무안관광의 새 지평, 갯벌랜드... “힐링하러 오세요”

전시·먹거리 등 종합관광지 조성
방갈로·캠핑장 등 숙박시설 완비
다양한 시설, 가족 관광객에 인기

무안갯벌랜드가 무안 관광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3년 해제면 유월리에 199억 원을 투입해 전시와 체험, 숙박, 먹거리가 있는 치유와 힐링의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2017년 말 준공했다. 또한 유원지 통합명칭을 공모하여 “무안갯벌랜드”로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갯벌랜드에는 무안생태갯벌과학관을 중심으로 분재테마전시관과 분재전시실 등 볼거리 이외에도 숙박시설인 황도이글루, 황도움막, 방갈로, 캐러반, 오토캠핑장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식당과 매점, 카페, 바비큐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생물 다양성 등 가치를 인정받는 무안갯벌

무안갯벌은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갯

무안갯벌축제



벌의 생성·발달·소멸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2001.12.28.) 및 전라남도 제1호 갯벌도립공원(2008.6.5.)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랍사르습지 1732호로 등록(2008.1.14.)되었다.

이런 무안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갯벌체험장도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재미가 있는 생태갯벌과학관

무안생태갯벌과학관은 무안갯벌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2006년 준공되었으며 2017년 1월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변모 중에 있다.

전시시설이외에도 1층 프로그램실에

황도움막



서는 나지 인형 만들기, 물고기 색칠하기 등 6종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는 50여명이 한꺼번에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또한 2층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힐링 카페와 황도 촉감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분재의 메카

해제면은 전국 분재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의 30%가 이 고장 분재라 지역민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분재산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고 문형열씨의 심혈과 혼이 깃든 분재작품과 각종자료 1,000여점이 분재테마전시관과 분재전시실, 분재하우스 등에 전시되어 무안군이 분재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오토캠핑장



특히 무안군에서는 분재 대중화를 위해 분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힐링체류형 관광지

무안갯벌랜드에는 황도와 편백 나무를 활용하고 아름다운 갯벌을 바라다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숙박시설에는 단체 이용객을 위한 황도움막(6~8인), 가족 이용객을 위한 황도이글루(4~5인)와 캐러반(4~6인), 3인 이내 가족이나 모인객을 위한 방갈로 등이 있으며 캠핑족을 위한 오토캠핑장과 캐러반사이드도 있다.

편의시설로는 샤워장, 바비큐장, 음수대 뿐만 아니라 갯벌을 바라다보고

분재테마전시관·전시실



산책할 수 있는 갯벌탐방로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이 있으며 매점과 식당, 카페가 있어 누구나 자연을 만끽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형·체류형 관광지이다.

생태갯벌과학관의 영상실과 무안생태갯벌사업소 회의실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장소로도 적합하다.

무안군은 황도갯벌랜드 부지 내에 해상생존 및 응급처치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체험관 준공을 계획 중이며, 무안갯벌축제도 매년 개최하여 명실공히 무안갯벌랜드를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조선대에 생긴 두번째 기억의 계단

보해양조, 세월호·5·18·위안부 추모공간 조성

“세월호와 5·18, 그리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상처가 참 많아요.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의 계단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1월 보해양조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제관 사이에 ‘기억의 계단’을 설치했다. 이후 기억의 계단을 좀 더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이 회사에 꾸준히

히 접수됐다. 보해가 설치한 ‘기억의 계단’은 세월호와 광주민주화운동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이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기억의 계단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을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작품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 청소년의 미래, 책임지고 응원합니다”

문인 북구청장, 지원·보호대책 마련 예술·스포츠·봉사활동 등 체험 운영

문인 북구청장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6일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청소년 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청소년 지원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 자립·보호



문인 북구청장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

며,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 수능콘서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비롯한, 진로체험, 직업탐방, 창업·전문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들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카페’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11월 7일 (수)
음력 : 9월 30일

수도권 날씨
9 ~ 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추가등록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추가 참여를 받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공정한 유치원 입학 기회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

원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 확

대를 위해 유치원 추가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추가된 등록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올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18년 11월 1일 서비스가 개통돼 사회적 배려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광주 172개 사립유치원 중 17개 유치원이 ‘우선모집’에 참여 중이다. /광주=양수영 기자